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정책과 향후 지원 방향

Policy to Support the Global Market Entry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Future Direction

김 홍 석*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2012년 12월 9일 접수, 2013년 1월 10일 수정, 2013년 1월 18일 채택)

Hong-Seok,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 Graduate School, 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Business Offic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Received 9 December 2012, revised 10 January 2013, accepted 18 January 2013)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to foster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support the advancement of domestic environmental companies into overseas markets. The amended act reflects changes in the government's policies on environment related issues. This paper uses outcomes of research conducted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environment industry to present long-term strategic plan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companies into the global markets and to vitalize the environment industry at home.

The suggestions for assisting domestic companies in making inroads into overseas markets are as follows: building up and expanding cooperative network; fostering promising companies and exports by making the right choices and focuses;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and strengthening supports for development of new customers; promoting supports for winning overseas projects; and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the Global Climate Fund (GCF).

Key words : Environmental industry, Environmental company, Environmental technology, GCF

1. 서 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국

가 간 협의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팽창, 산업화 및 도시화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

*Corresponding author.
Tel : +82-(0)10-5533-9051, E-mail : kimhs1@keiti.re.kr

시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맥락에서 환경산업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2008년 8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였다(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2009).

녹색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거 환경산업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대응으로 출발하여 산업계의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현재의 환경산업은 산업을 통한 해외진출 및 새로운 사업개발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함께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2004). 특히, 경제 및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환경기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로 선진국의 개도국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들도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시장을 놓고 선진국과 그에 속한 환경업체체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환경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환경설비업 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이용법과 환경서비스업 등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산업의 비중 변화에 따라, 환경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기술교류,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국내 환경시장 및 해외 환경시장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환경산업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정책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기, 수질 등 환경관리 및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투

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수요의 창출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2000년 4월에는 재경부·산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단장: 환경부차관)을 구성하고,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기반구축을 기본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환경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산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2.1 현행법률

환경산업은 인위적인 시장창출 산업으로써 국내의 환경규제 및 정부의 환경정책 등 법적·제도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므로, 타 산업보다 더욱 정부정책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확립되어야 하며 세계 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전략화’ 등 강력한 환경산업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전 법률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환경기술분야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였다.

대의 환경규제 및 환경시장 개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환경산업의 조속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해외시장 선점 등 수출전략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산업부문을 종합계획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인센티브 확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확대 등 그간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 4. 28)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큰 의의를 갖는다.

2.2 개정내용

기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산업지원 관련내용이 신규로 규정됨에 따라 제명 변

경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육성·지원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산업범위의 구체화

법이 변경되면서 구체화된 부분이 바로 환경산업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경방지시설업’은 환경시설의 설계·시공 의미로 해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환경산업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인 환경산업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수립하고 있는 동 종합계획을 환경산업의 육성이라는 법 목적에 부합되도록 육성계획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였으며, 환경산업의 발전전망, 경쟁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체계적 환경기술개발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조기달성을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 우수 환경업체 지정·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5년간(유효기간)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 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산업체의 전문화·대형화 유도를 통한 국내 환경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환경산업체의 수출전략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환경부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국가통계로 추진 중인 환경산업 통계조사(2001년부터)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 환경산업협회 설립·운영

환경산업협회가 환경산업체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에 대

Table 1. Comparison chart of new and old provisions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domestic industries).

Before revision	After revision
<p>< Newly inserted provisions ></p>	<p>Article 13-3 (Support, etc. for entering into overseas markets)</p> <p>① In order to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it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may drive the projects falling on into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netration into overseas markets. 2. International exchange of technology, manpower, and information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3. Holding of exhibitions and academic conferences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4. Overseas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with respect of to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5. Support for providing the information, consulting, advice, and educ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ndustry’s foray into overseas markets. <p>② In the event that any environmental company conducts a project falling on into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may partially subsidize or lend the funds necessary for to driving drive the projec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velopment, designing, and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facilities. 2. Penetration into overseas markets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markets. 3. International exchange of technology, manpower, and information in the environmental industry. 4. Any other projects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한 내용이 동 법에 수록되었다. 환경산업협회는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해외 교류를 통한 환경산업체들의 국가간 협력 기회 마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 환경산업진흥단지

환경업체간 협업 및 공동 기술개발, Test-Bed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촉진을 도모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인 영세성 및 기술경쟁력 부족에 대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의 경우 해외진출을 위해 특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KOTRA의 지원 수단만으로는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은 B2G(국가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 방식의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환경 시설 설치, 정수·하폐수 처리 등 국외 공공사업 추진 시 관련 제품·시설이 동반 수출되는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현행 법 제5조의 2는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환경제품의 표시 표준화, 환경산업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계획 파악 및 협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환경정보의 공개 및 검증

기업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환경경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 투자자의 친환경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3. 환경산업시장 일반 현황

3.1 국내 환경산업 시장현황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산업의 생산과 내수는 1996년 외환위기로 기복을 보이긴 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하게 증가를 하였다. 이는 환경산업의 수요에서 환경오염방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에 기인한 것이다. 환경오염방지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수질부분의 지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오염방지지출 규모는 1998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주체에 의해 환경오염방지 지출이 최우선적으로 억제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심리 또한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염매체별 환경오염방지지출 규모는 수질 부분의 지출액이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대기 부문과 소음-진동 등의 기타 부문은 수질 부문과 폐기물부문에 비해 지출규모가 낮았으며 성장률 또한 높지 않았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09년 정부에서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환경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그 규모가 크게 증가 되었다.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그림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6년간('04~'09) 연평균 약 15.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009년도 국내 환경시장은 44조 6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8% 증가 하였다. 국내 환경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4.1%('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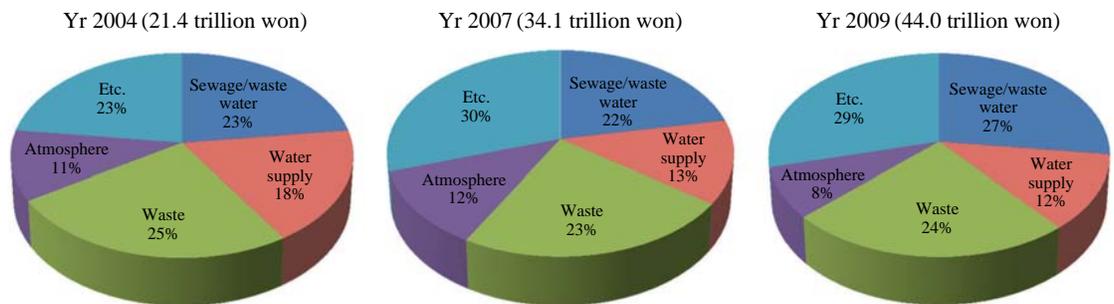


Fig. 1. Change in the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y scale by area (unit: KRW trillion).

Table 2. Market Size of Korean's Environmental Industries.

(unit: trillion won)

Year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nnual growth rate ('04~'09)
Sewage/Waste water	5.01	4.28	5.53	7.46	9.03	12.01	19.1%
Water supply	3.88	4.11	4.28	4.43	5.26	5.52	7.3%
Waste	5.31	6.25	7.62	7.87	9.67	10.42	14.4%
Atmosphere	2.30	2.30	3.36	4.16	4.37	3.35	7.9%
Other	4.93	6.96	8.40	10.20	12.47	12.70	-
Sum	21.43	23.90	29.19	34.11	40.81	44.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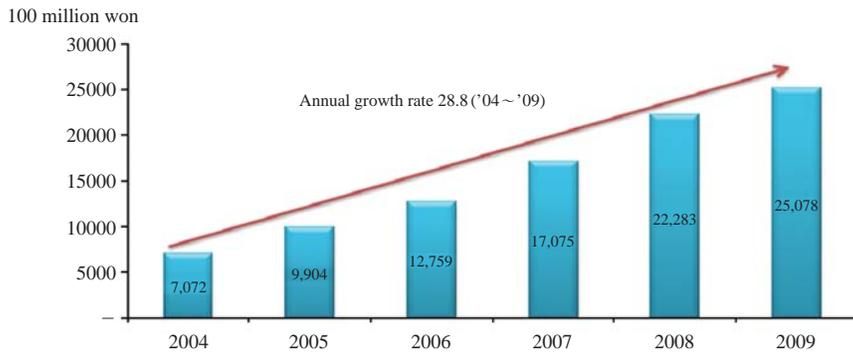


Fig. 2. Progress of the export scale in the domestic environmental area (2004~2009).

로 정보통신업 (3.9%)과 유사하며, EU 국가와 (0.8%~4.5%) 비교 시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국내 환경산업 분야별 구성비('09년)는 하·폐수 27.3%, 상수 12.5%, 폐기물 23.7%, 대기 7.6%로 하·폐수 분야가 가장 큰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체의 2009년 환경부문 평균매출액은 13.9억, 환경부문 중 종업원수는 업체당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매출액 상위 10%인 25개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위주의 내수 의존형 구조로 건전한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상황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3. 1. 1 국내 환경산업 수출 규모

국내 환경부문 수출 규모는 2004년 7,071억 원에서 2009년 2조 5,078억 원으로 동 기간 동안 연평균 28.8% 급성장하여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환경부문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타 산업 2009년 수출증가율은 △13.9%로 동기대비 환경부분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 산업 수출규모(약 425조원, 2009년) 대비 0.59%로 매우 미미한 규모이다.

분야별 구성비(2009년)를 보면 수질 67.7%, 대기 22.1%, 폐기물 5.8%, 기타 4.4%로 대기 및 수질분야가 전체 환경부문 수출규모의 90% 차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해외 진출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

수질분야에서는 담수설비 및 폐수관리관련 설비·건설 부문의 해외수주 증가로 수질 분야의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64.0% 증가하여 1조 6,980억 원(2009년)으로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선진기업 대비 저조한 편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c).

3. 2 해외 환경산업 시장현황

국내 환경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1990년대 이후 세계 환경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EBI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환경시장은 2000년 5,440억 달러에서 2010년 7,967억 달러로 10년간 연평균 '약 3.9%씩'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어 '약 3.2%씩' 증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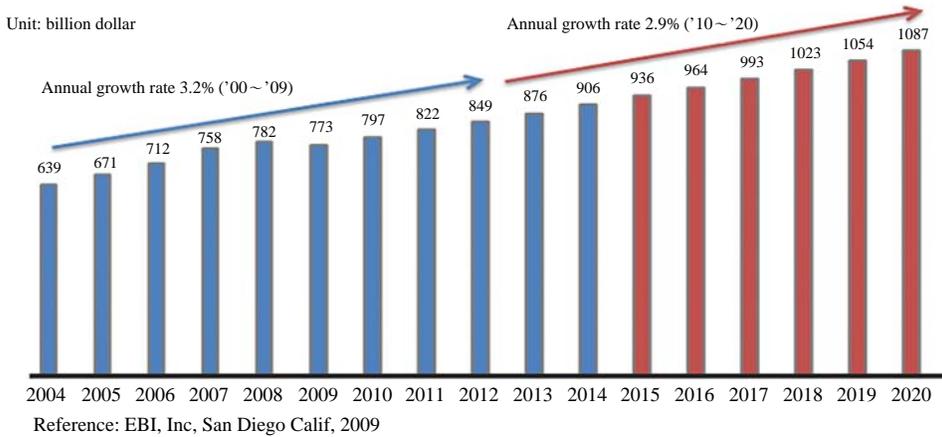


Fig. 3. Scale of the world environmental market and growth expectations (2000~2020).

Table 3. Growth expectations for the world environmental market by region ('10~'20). (unit: billion dollar)

Year	USA	West Europe	Japan	Asia	Mexico	South Americ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Middle and East Europe	The middle East	Africa	Sum	Year-on-year growth rate (%)
2000	212.3	157.8	93.7	24.0	3.6	10.1	15.1	8.4	9.2	6.8	3.4	544.0	4.4%
2001	217.0	160.8	93.3	27.1	3.6	11.0	15.3	8.6	9.9	7.0	3.6	557.0	2.4%
2002	224.6	166.9	92.6	30.5	3.8	12.4	16.0	9.3	10.9	7.5	3.8	578.0	3.8%
2003	232.4	173.7	92.9	34.4	4.0	13.8	16.5	10.1	12.0	8.1	4.6	603.0	4.2%
2004	245.2	182.4	94.9	39.7	4.4	15.5	17.2	10.8	13.3	9.8	5.5	639.0	6.0%
2005	256.3	189.7	96.0	45.3	5.0	17.8	18.0	11.7	14.7	10.9	5.8	671.2	5.1%
2006	371.4	199.6	97.8	51.6	5.6	20.1	18.9	12.6	16.4	11.8	6.2	711.9	6.1%
2007	289.6	209.5	99.6	59.0	6.2	22.7	19.8	13.6	18.2	13.0	6.8	757.9	6.5%
2008	288.6	217.5	98.6	67.0	6.8	26.2	20.6	14.1	20.6	15.3	7.4	782.4	3.2%
2009	284.2	210.7	93.8	71.3	7.0	27.3	20.2	13.9	20.5	16.1	7.5	772.5	-1.3%
2010	290.5	212.8	93.6	77.6	7.4	30.2	22.2	14.3	22.0	17.8	8.2	796.7	3.1%
2011	297.5	216.6	95.3	83.3	7.8	32.6	22.9	14.7	23.1	19.5	8.8	822.0	3.2%
2012	304.6	220.5	97.0	89.4	8.1	35.2	23.6	15.2	24.3	21.2	9.4	848.6	3.2%
2013	311.9	224.5	98.8	96.0	8.6	38.1	24.3	15.6	25.5	23.1	10.1	876.4	3.3%
2014	319.4	228.5	100.6	103.2	9.0	41.1	25.0	16.1	26.8	25.2	10.8	905.6	3.3%
2015	327.1	232.6	102.4	110.9	9.4	44.4	25.8	16.6	28.1	27.5	11.5	936.3	3.4%
2016	334.3	236.6	104.0	117.5	9.8	47.1	26.4	17.1	29.3	29.7	12.3	963.9	3.0%
2017	341.6	240.6	105.7	124.4	10.2	49.9	27.1	17.5	30.4	32.0	13.2	992.7	3.0%
2018	349.1	244.7	107.4	131.8	10.6	52.9	27.7	18.0	31.6	34.6	14.1	1022.6	3.0%
2019	356.8	248.8	109.1	139.7	11.0	56.0	28.4	18.5	32.9	37.4	15.1	1053.9	3.1%
2020	364.7	253.1	110.8	148.1	11.5	59.4	29.2	19.1	34.2	40.3	16.2	1086.5	3.1%
Annual growth rate	2.7%	2.4%	0.8%	9.5%	6.0%	9.3%	3.3%	4.2%	6.8%	9.3%	8.2%	3.5%	-

Reference: EBI, Inc (2009), Global Markets Data.

2020년에는 세계 환경시장이 약 1조 8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EBI, 2009).

실제 각국의 환경산업 시장규모 발표 자료들을 보

면, EBI의 실적 및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산업 시장분석에서는 새로운 환경산업 영역이 제외되어 있어 광의의 환경산업으로 확대해보면, 전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3. 2. 1 국가별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EBI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세계환경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미국(36%)이며, 서유럽(27%), 일본(12%)이 2~3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시장은 2000년 2,123억 달러에서 2020년 3,647억 달러로 연간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서유럽 시장은 2000년 1,578억 달러에서 2020년 2,531억 달러로 매년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세계 3위의 환경시장 규모의 일본은 20년간 매년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및 아시아에서의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전 세계 분야별 환경시장을 살펴보면 고품질 폐기물 관리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자원 분야가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시장이 수자원 분야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시스템 분야는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가장 유망한 분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4.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2009년 4월에는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 2개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환경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지원 업무를 확대·강화하여 추진 중이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은 KEITI, KOTRA, 해외건설협회 등 9개 기관이 있다.

하지만 국내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선진기업 대비 기술력이 낮아 해외 프로젝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환경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환경산업 수출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한정된 국내 수요로 인하여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환경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KEITI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국내 환경기술 R&D지원,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 및 녹색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EITI의 경우 환경협력을 크게 환경산업 국제공동현지화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4.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TRA는 1962년에 설립된 국가 무역진흥기관으로 그 동안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KOTRA는 전 업종을 망라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출범한 그린통상지원처는 그린사업팀 등 3개 팀을 통하여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4.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는 해외원조 및 협력사업 내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환경지원 수준은 유럽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¹⁾ 회원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초기단계로 여

¹⁾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도상국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여국들 간에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개발협력력을 조정할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된 OECD산하 위원회.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동 위원회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겨진다. 최근 KOICA 선진화 계획을 통해 환경분야가 범 분야 이슈로 정의되고 중장기적으로 범 분야 이슈를 강조해 갈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KOICA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협력사업 중 개발조사사업은 지원 대상국의 각종 공공사업 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해외건설링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개도국 정보를 선점하게 됨에 따라 수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산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방안

현 정부의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기전만 해도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은 개별 업체 차원에서 추진이 많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 4. 28) 및 시행(2011. 10. 29)으로 점차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 또한 이들의 지원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더욱이 영세한 국내 환경산업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화되고, 이들 업체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금융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가지 전략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1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내환경기업들이 선진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의 성공적 공략을 위해서는 산업계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의 적정한 지원이



Fig. 4. Long-term strategic plan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필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요 환경프로젝트의 발주처는 정부·공공조직이며, 선진국들도 자국의 환경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등 효과적인 정부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먼저 해외진출에 대한 총체적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환경정보 자원 체계화를 통해 보유 환경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기반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필요하다.

- 체계적인 해외진출 전략 수립
- 국가 및 국제기구들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해외 수집정보의 DB화 및 체계적 관리

5.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기업 및 수출 분야 육성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97%에 달하며 국내 환경시장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준비는 더욱더 절실했다. 환경기업들의 기술적 현황과 글로벌 환경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선도 분야 선택으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고, 선정된 전략적 선도 분야에 집중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글로벌 유망환경기술 개발지원과 산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필요하다.

- 적합한 환경전문 수출기업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 전략적 선도분야 도출 및 분야별 환경프로젝트 발굴단 운영
- 유망환경기술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전략적 개발 지원

5.3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고객 발굴 지원 강화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적 자산의 확보와 함께 시장개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개척은 먼저 글로벌 환경시장을 아시아, CIS 및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중남미 4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 특성에 맞는 우선 진출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우선 진출국가에 유망한 환경

기술을 현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권역별 진출거점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외프로젝트의 발주처 관계자들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Cho and Oh, 2010).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 환경개선마스터플랜수립 지원강화 및 국가별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해외진출 권역별 맞춤형 환경기술의 현지화 지원 강화
- 권역별 해외현지 사무소와 같은 거점 확대설치

5.4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강화

해외 사업 진출의 성과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마케팅, 수주지원, 금융지원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수주역량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 도출과 수행이 필요하다.

국내 환경시장이 성장 한계에 이른 3대 강점 환경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동력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3대 강점 환경산업인 물, 폐기물자원순환, 대기산업은 매출규모가 2010년 전체 환경산업의 92%를 차지하나 성장률은 2005~2010년 환경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22.3%임에 반해 3대 강점 환경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7.7%로 환경산업 전체 평균보다 낮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해외 환경시장의 경우 선진국 시장은 2% 이하의 낮은 성장이 전망되지만, 개도국 시장은 10% 전후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비중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처럼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먼저 해외수주 마케팅 역량 강화, 수주컨설팅 밀착 지원, 수출금융 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필요하다.

- 해외수주 마케팅 역량 강화

- 수주컨설팅 밀착 지원
- 수출금융 지원제도 활성화

5.5 GCF를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발굴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긴박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 기후변화 논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2년 10월 20일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국제금융을 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GCF의 기금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바는 없지만 향후 CDM 사업과 같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동안 CDM 사업이 중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 위주로 투자되었으나,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CDM 사업의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6. 결 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맥락에서 환경산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

미국, EU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볼때 환경산업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측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환경산업을 수출 전략화하여 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환경특수”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정부도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점차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이들의 지원정책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방안으로 해외협력 네트워크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기업 및 수출분야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고객발굴 지원 강화,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강화, GCF를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발굴 등 5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적개발원조 등을 활용한 수출금융지원, 향후에는 기후변화기금(GCF) 등 우리정부가 국제기구에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만큼의 혜택이 우리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금융의 활용방안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차원에서 환경산업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이자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Cho, Y.A. and H.R. Oh (2010) Significant environmental opportunities in Colomb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32(6), 539-546.
- EBI (2009) Inc, Global Markets Data.
- EBI, Inc (2009) San Diego Calif.
-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2004) A Study on the Measures for Nurturing the Mid- & Long-term Environmental Industry and Promoting the Industry's Penetration into Overseas Markets, 45-48.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arbon Market and It's Outlook, 18-24, Jun.
-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Action Plan for Practicing Green Growth in the Environment Field, 88-90.

Ministry of Environment (2011a) A Study on Measures for Rai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vironment Industry, 25-26.

Ministry of Environment (2011b)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Major Business Types in the Environment Industry and Their Development Measures, 11-17.

Ministry of Environment (2011c) A Statistical Survey Report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for 2006-2011.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2009) A 5-Year Plan for Green Growth for 2009-2013, 10-11.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 The Forum for the Successful Launching and Operation of Green Climate Fu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Secretariate for GCF and Korea's Response to GCF, 8-9.